



김영권 / 대한전자공학회 회장
건국대 전자공학과 교수

발전하는 학회를 지향하며

임신(壬申)년 새해 인사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신미(辛未)년을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 우리 전자공업계의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부진했던 모든 요소들을 떨쳐버리고 기술, 생산, 수출 전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취를 거두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전자공업의 전체가 분발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힘을 모읍시다.

대한전자공학회는 1946년에 창립된 이래 46년의 긴 세월동안 12,000명 회원을 모신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대 최고의 학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직 학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오신 21대에 이르는 역대 회장님들과 모든 회원들, 그리고 산업계의 부단한 노력과 물심 양면의 협조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전자공학회는 정관에 전자 정보 통신 및 그 응용분야에 관한 학술 및 기술의 진흥과 발전에 공헌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주된 사업으로는 학술발표회, 단기기술강좌, 각 분야별 학술세미나 및 강연회 등

의 학술사업과 학술논문지, 학회지, 전공도서 및 기술정보지 등의 발간사업 그리고 학술적, 기술적 연구사업 및 표준규격의 제정 등 제반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금년에 중점적으로 수행할 몇가지 사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제학술회의 개최입니다. '92년 7월 17일~18일 양일간에 경주에서 JTC-CSCCD'92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일본 전자정보 통신학회와 공동으로 여섯 번째로 열리는 회로시스템, 컴퓨터 및 통신에 관한 국제 학술회의입니다. 또 중국 전자공학회, Harbin 공대와 공동으로 중국 Harbin에서 8월 14일~15일 양일에 HICEC'92가 개최될 예정이고 작년에 연변에서 모였던 한민족 전자공학인들의 국제학술회의인 IC EIC'92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를 성취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는 학회지 12권, 논문지 24권, 영문 2권 등 38권의 정기간행물과 기타 기술지(교육지, 컴퓨터, 텔리컴 등)를 포함하여 40수권의 간행물을 출판하려면 비용과 업무가 엄청난 분량입니다. 예산, 시간 및 인력의 절감을 위

하여 DTP System을 도입할 예정이며 회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째는 수년전에 본 학회에서 편찬한 전자용어사전의 개정과 전자공학분야의 대학교재 편찬 사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 일차년도 사업으로 실험 Model을 설정하고 실험교재를 편찬할 것입니다.

네째는 2000년대를 향한 학회 발전상을 정립하고 지부사업을 적극지원하여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국외거주 회원들의 학회 활동을 위하여 외국지부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산학협동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학의 문호를 개방토록 추진하며 산업체 연구인력의 대학교육에의 참여와 대학연구인력의 산업체 연구에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힘쓸 것입니다.

또한 정례적으로 운영해오던 모든 사업은 더욱 양과 질을 향상시켜 갈 것이며 대한전자공학회는 회원 모두가 참여하고 학회를 통하여 회원 모두가 학문적으로 기술적으로 더욱 발전되어 국가 산업에 크게 기여하는 학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